

현대오일, 휘발유 가격 100원 인하

현대오일뱅크는 4월7일 0시부터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리터당 100원 할인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한다고 6일 발표했다.

현대오일뱅크는 고유가에 따른 국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7일부터 3개월간(7월6일까지)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할인해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경쟁기업과 달리 순수 국내자본인 현대오일뱅크는 사업구조가 원유정제 및 판매에 집중돼 있고, 영업이익도 작아 공급가격 인하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사실”이라며 “가격인하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가격인하 결정이 정부와 정유업계 상호간 신뢰와 존중의 분위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대오일뱅크의 가격인하 결정으로 SK에너지와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3사는 일제히 4월7일 0시를 기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씩 인하하게 됐으며, GS칼텍스만 구체적 인하시기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화학저널 2011/04/07>